

온라인 담론에서의 문화번역: Feminist에서 페미로의 재맥락화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권상미(울산대학교)

1. 서론

최근 국내외 통번역학 학계에서는 AI 시대 이후 통번역사의 역할 변화, 번역학의 외연 확장, 통번역 교육의 방향성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¹⁾ 이는 AI 기술 발전이 단순히 번역 산업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번역학 자체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은 번역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틀이 될 수 있다. 문화번역은 번역을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문화적 의미 이동과 재맥락화의 과정으로 이해한다(Maitland, 2017; Trivedi, 2007). 즉, 원문, 번역문, 번역가가 있는 전통적인 번역의 개념

1) 예컨대 국내에서는 2026년 동국대학교 번역학연구소 학술대회에서 “사라지는 직업에서 진화하는 주체로, 번역(가) 역할 재정립”을 주제로 AI 발전에 따른 통번역가의 역할 변화와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한국통역번역학회 역시 “AI 시대의 통번역 교육”을 주제로 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해외에서는 2026년 CIUTI 국제학술대회가 “Translation & Interpreting, AI, and the Language Industry: Research and Professional Practice”를 주제로 개최되어 AI 시대 통번역학 연구와 실무의 변화 방향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을 벗어나 특정 개념과 정체성, 담론이 새로운 사회문화적 맥락 속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의미와 감정 구조를 획득하는 과정 자체가 번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가 사회적 담론 형성의 핵심 공간으로 자리 잡은 오늘날, 문화번역은 온라인 담론 연구와도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특정 개념과 표현이 기존 맥락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공동체의 정체성과 감정 구조 속에서 재맥락화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단어는 단순한 언어적 기호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지닌 담론적 표상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러나 문화번역 개념은 여전히 추상적 수준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문화번역 과정이 구체적인 담론 공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Conway, 2012; Maitland, 2017).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디지털 담론 공간에서 외래 개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맥락화되고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feminist)’라는 외래 개념이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페미’라는 표현으로 재맥락화되는 과정을 문화번역의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글로벌 젠더 담론의 핵심 기호 중 하나인 ‘페미니스트’가 ‘페미’라는 단어로 축약되면서 한국 온라인 공동체의 정치적 정서적 맥락 속에서 어떤 변화를 거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 최대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DC Inside)에서 ‘페미’와 ‘페미니스트’ 담론 데이터를 수집하고, 키워드 분석, 의미 네트워크와 클러스터 분석 및 감정 분석을 수행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페미니스트’와 ‘페미’는 각각 어떠한 담론 맥락 속에서 사용되는가?

둘째, ‘페미니스트’라는 개념은 한국 온라인 담론에서 어떠한 의미 네트워크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페미’라는 표현으로 재맥락화되는가?

셋째, ‘페미니스트’와 ‘페미’ 담론은 각각 어떠한 감정 구조를 보이며, 의

미 클러스터별 감성 분포에는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문화번역 개념이 실제 온라인 담론 공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처럼 문화적 의미 이동과 재맥락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문화번역의 실증적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하고, 번역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문화번역과 번역 개념의 확장

전통적으로 번역은 서로 다른 두 언어 사이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적 행위로 이해됐다. 캣포드(Catford, 1965)는 번역을 “한 언어의 텍스트 자료를 다른 언어의 동등한 텍스트 자료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p. 20). 이러한 관점에서 초기 번역 연구는 언어 간 등가성과 의미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번역학 역시 언어학 혹은 비교문학의 하위 영역에 가까웠다(Trivedi, 2007, p. 2).

그러나 이후 문학 텍스트가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문화로 구성된다는 인식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바스넷과 르페브르(Bassnett & Lefevere, 1990)가 제시한 번역학의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론화되었다. 이들은 번역을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문화적 실천’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후 번역은 문화와 권력, 재현의 문제 속에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Bassnett & Lefevere, 1998).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전환이 곧바로 문화번역 개념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문화적 전환은 번역을 문화적 실천으로 이해하려는 번역학 내부의 패러다임 변화에 가까웠지만, 여전히 원문과 번역문, 그리고 언어 간 이동이라는 기본 전제 자체는 유지되고 있었다.

반면 문화번역은 이러한 전통적 번역 개념의 경계를 더욱 급진적으로 확장한다. 이상빈(2012)은 문화번역을 “원본 텍스트를 앞에 두고 하는 파생적 위계적 개념의 번역이라기보다 문화 간의 협상, 문화로서의 번역, 그리고

문화의 혼종성을 발현시키는 전환적 사고”라고 설명하였다(p. 26). 또한 그는 번역이 단순한 언어적 전환이 아니라 “철학적 존재론적 인식론적 전환”이라고 설명하면서(p. 27), 번역 개념이 언어 중심적 관점을 넘어 문화적 의미 이동과 정체성 재구성의 차원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화번역의 개념은 바바(Bhabha, 1994)의 논의에서 본격적으로 이론화되었다. 바바는 문화번역을 단순히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사이의 텍스트 번역이 아니라, 인간의 이동성과 이주, 디아스포라, 혼종성과 같은 문화적 전환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이때 번역은 번역문과 같은 정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는 수행적(performative) 과정이 된다.

콘웨이(Conway, 2012)는 문화번역 개념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문화에 대한 관점과 번역에 대한 관점의 조합에 따라 문화번역의 여러 양상을 개념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는 문화를 인류학적 문화(anthropological culture), 상징문화(symbolic culture), 공동체로서의 문화(culture as community)로 구분하고, 번역을 다시쓰기(rewriting)와 이동(transposition)으로 구분함으로써 문화번역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체계화하였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외래 개념이나 텍스트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재해석되고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은 상징문화의 차원에서 문화적 요소가 새로운 문화적 맥락으로 이동하는 과정으로서의 문화번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문화번역 개념은 번역학 내부에서 비판과 긴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트리베디(Trivedi, 2007)는 문화번역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수행해 온 번역 자체의 소멸과 삭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p. 6). 그는 문화번역의 시대 속에서 “번역은 마치 ‘죽어 묻힌 것(dead and buried)’과 같은 운명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하였다(p. 10). 이는 문화번역 개념이 기존 번역의 경계를 급진적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번역 자체가 해체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번역학 내부의 긴장을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뎀(Pym, 2010) 역시 문화번역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종종 실제 번역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이러한 긴장은 문화번역 개념의 새로운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한다. 기존 의미 체계가 해체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정체성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화번역의 관점을 바탕으로 번역 개념을 확장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즉 번역은 반드시 두 언어 간 텍스트 변환뿐 아니라 특정 개념이 새로운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재맥락화되고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까지 포함할 수 있다. 특히 외래의 개념이 한국 온라인 담론 속에서 축약 변형되고 새로운 정치적 정서적 함의를 획득하는 과정은 단순한 언어 차용이나 신조어 형성이 아니라 문화번역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의미 재맥락화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2 언어와 젠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 관계와 정체성을 구성하고 재생산하는 중요한 기제로 이해되어 왔다. 특히 젠더(gender)는 언어를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수행되는 대표적인 범주 가운데 하나이다. 폰 플로토(von Flotow, 1997)는 언어가 젠더 연구와 번역학 모두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설명하면서, 가부장적 언어에 대한 문제의식과 언어 전이에 대한 논의가 각각 여성주의 연구와 번역학의 중요한 기반이 되어 왔다고 설명하였다(p. 1).

젠더 개념은 생물학적 성(sex)을 넘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정체성으로 이해되어 왔다. 일레로, 드 보부아르(de Beauvoir)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On ne naît pas femme: on le devient)”라고 설명함으로써, 여성성이 선천적 본질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von Flotow, 1997, p. 1). 이후 젠더는 단순한 남성/여성의 생물학적 이분법적 범주를 넘어, 권력, 정체성, 사회적 위치 등을 둘러싼 수행적(performance) 개념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언어는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감정 구조를 형성하는 핵심적 장치로 기능한다. 특정 단어와 호명 방식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가치 판단과 정서적 태도를 내포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정적이지 않고 수행적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변화 과정

을 거친다.

흥미로운 점은 본 연구의 대상인 ‘페미니스트’라는 용어 자체 역시 고정된 의미를 가진 표현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변화해 온 개념이라는 점이다. 오펜(Offen, 2000)에 따르면 “féminisme(페미니즘)”와 “féministe(페미니스트)”라는 표현은 유럽 여성주의의 역사 속에서 단순한 중립적 명칭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갈등 속에서 형성된 개념이다. 초기 해당 표현은 여성 권리 주장자들을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맥락에서도 사용되었으며, 이후 여성운동 내부에서 정치적 정체성 용어로 재전유되었다. 이후 페미니즘은 여성 참정권 운동과 결합하며 여성의 권리와 정치적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 정치적 운동 및 이념 체계로 자리 잡게 되었다(Cott, 1987, pp. 3-5). 이는 특정 개념과 용어의 의미가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권력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은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페미니스트’와 ‘페미’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페미니스트’라는 개념은 한국 온라인 공간에서는 ‘페미’라는 축약 표현으로 변형되면서 단순한 줄임말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에서 ‘페미’로의 변화를 단순한 언어 축약이나 신조어 형성이 아니라, 젠더와 권력, 감정 구조가 개입된 문화번역의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3 담론 공간으로서의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는 정보 교환 공간을 넘어 특정 집단의 정체성과 감정 구조,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고 재생산하는 중요한 담론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양수민과 이신행(2023)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같은 목적 또는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집단 활동의 장소”로 설명하면서(p. 140), 이용자들이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게 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온라인 공동체의 정체성은 언어를 통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Bucholtz & Hall, 2005). 타지펠과 터너(Tajfel & Turner, 1986)의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따르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우리’라는 정체성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아닌 그들’이라는 외집단(out-group)을 형성하

게 된다. 이러한 내집단 외집단 구분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언어와 담론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며, 특정 표현은 공동체 내부의 감정과 가치 판단을 드러내는 상징적 기호로 기능하게 된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와 같은 언어적 호명이 집단 정체성과 결합하면서 더욱 강한 정치적 감정적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차유리 등(2025)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표면적으로는 게임, 스포츠, 연예, 취업 준비 등 관심사를 기반으로 형성되더라도, 실제 공동체 분위기는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조직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다(p. 185). 그 결과 개별 커뮤니티는 “여성 주도적 커뮤니티” 혹은 “남성 주도적 커뮤니티”와 같은 젠더화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즉 온라인 커뮤니티는 단순한 정보 공유 공간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감정 구조와 가치 체계가 축적 재생산되는 담론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내부 담론은 확증편향과 결합하면서 집단 중심적 사고와 태도를 강화하고, 내집단과 외집단 간 대립과 적의를 촉진한다(양수민과 이신행, 2023).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단순한 의견 교환 공간이 아니라 집단 정체성과 젠더 권력 관계가 언어를 통해 구성 재생산되는 문화적 공간이라는 이해를 기반으로 ‘페미니스트’와 ‘페미’ 담론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 전체의 인식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 전반의 담론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온라인 담론 공간에서 ‘페미니스트(feminist)’라는 외래 개념이 ‘페미’라는 단어로 재맥락화되는지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에 분석 대상 플랫폼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중 하나로 평가받는 디시인사이드를 선정했다. 디시인사이드는 2026년 5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2억 5,800만을 기록하였으며, 2위

플랫폼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평가된다(강정아, 2026). 또한 정치 사회 이슈뿐 아니라 게임, 스포츠, 팬덤, 연예, 대학, 주식 등 다양한 관심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게시판(갤러리)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선담은, 2025).

한편 디시인사이드는 남성 이용자가 많은 커뮤니티로 인식되기도 하나, 이용자 성별 구성에 대한 공식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이를 특정 성별 집단의 담론으로 전제하지 않았다.

먼저 디시인사이드 통합검색에 노출되는 공개 게시글을 대상으로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검색 키워드는 ‘페미’와 ‘페미니스트’ 두 가지로 설정하였으며, 검색 결과는 정확도순과 최신순 결과를 함께 반영하였다.

다만 검색어별로 실제 수집 가능한 시계열 범위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두 집단 간 공통적으로 수집 가능한 기간인 2025년 6월 20일부터 2026년 4월 28일까지의 게시글만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중복되는 게시글은 제거하고, 제목, 본문, 게시판 정보, 작성 시각 등의 메타데이터를 정리하였다.

초기 수집 코퍼스는 총 9,876건의 게시글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중복 게시글 제거, 분석 불가능한 사례를 제외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8,767건의 게시글을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이 중 페미 관련 게시글은 5,380건, 페미니스트 관련 게시글은 3,387건이었다. 공백 기호 영문 등을 포함한 전체 문자 수 기준으로는 페미 집단이 총 988,608자, 페미니스트 집단이 총 1,290,209자였으며, 문서당 평균 문자 수는 각각 약 183.8자와 380.9자였다. 이는 페미니스트 담론이 상대적으로 설명적 서술적 텍스트를 포함하는 비율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코퍼스는 특정 정치 게시판에 한정되지 않고, 주식 게임 버튜버 만화 연예 스포츠 대학 커뮤니티 등 다양한 주제의 갤러리에서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디시인사이드 통합검색에 노출된 공개 게시글을 기반으로 구축된 검색 기반 코퍼스이며, 삭제되었거나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는 게시글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특정 시기 디시인사이드 통합검색 환경에서 형성된 온라인 담론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할 필요가 있다.

3.2 데이터 전처리

본 연구는 디시인사이드 게시글 데이터를 텍스트마이닝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단계적인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입력 데이터는 수집된 게시글의 제목(title)과 본문(body)을 결합한 텍스트를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 목적에 따라 전처리 강도를 달리 적용하였다. 키워드 분석 및 의미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노이즈 제거와 표기 정규화가 중요하므로 상대적으로 강한 전처리 경로를 사용하였다. 반면 감성 분석에서는 욕설, 비하 표현, 감탄사 등 원문에 포함된 정서적 신호 자체가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되므로 최소 수준의 정제만 수행하였다.

키워드 및 네트워크 분석용 텍스트는 형태소 분석 이전에 문자열 정규화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URL 및 HTML 태그를 제거하고, 한글 영문 숫자 공백 이외의 특수문자는 제거하였다. 또한 연속된 공백은 단일 공백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정규화 과정은 링크, 특수문자, 이모지 등에 의해 토큰이 과도하게 분절되는 현상을 줄이고, 코퍼스 간 비교 가능한 표면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문장 분리는 규칙 기반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디시인사이드 게시글은 구어체 표현, 이모지, 특수기호 사용 빈도가 높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줄바꿈과 한국어 영문 문장부호(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말줄임표 등)를 기준으로 문장을 분리하였다. 의미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동일 문장 내부에서 함께 등장하는 단어를 공출현(co-occurrence) 관계로 정의하였다.

감성 분석용 텍스트는 최소 정제 원칙을 적용하였다. URL과 HTML 태그만 제거한 뒤 공백을 정리하였으며, 특수문자 삭제, 욕설 마스킹, 조사 제거, 어간 추출 등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는 사전 학습된 감성 모델이 욕설, 비속어, 부정 표현 등 원문에 포함된 정서적 단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어 형태소 분석에는 KoNLPy에서 제공하는 Okt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였다. 키워드 및 빈도 분석에서는 명사 중심 토큰을 추출하였고, 의미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명사와 형용사를 함께 추출하여 의미 연결 구조를 구

성하였다.

형태소 추출 이후에는 후처리를 추가로 수행하였다. 먼저 ‘일+분→일본’, ‘한+국→한국’과 같이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 분리된 복합명사를 규칙적으로 재결합하였다. 반면 ‘일본페미’와 같은 합성 표현은 ‘일본+페미’처럼 분리하여 담론 내 결합 관계를 보존하였다. 또한 ‘반페미’, ‘안티페미’ 등은 하나의 의미 단위로 유지하였다.

불용어 제거도 함께 수행하였다. 조사, 접속 표현, 담화 표지, 커뮤니티 특유의 잡음 표현(dc, app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한 글자 명사 가운데 의미 기여도가 낮고 과빈출되는 일부 토큰(예: 거, 것, 수, 나, 너, 그, 내)은 제거하였다. 다만 젠더 담론 분석의 특성을 고려하여 ‘남’, ‘여’ 등 젠더 지시 기능을 가지는 한 글자 명사는 유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색어 자체가 빈도 분석 결과를 과도하게 지배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 분석용 토큰 집합에서는 검색어 자체(‘페미’, ‘페미니스트’)를 제거한 버전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전처리 과정을 거쳐 구축된 최종 분석 코퍼스는 키워드 빈도 분석, 로그 오즈(log-odds) 기반 특징 토큰 분석, 의미 네트워크 분석 및 감성 분석에 활용되었다.

3.3 데이터 분석 절차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와 ‘페미’ 담론의 의미 구조와 정서적 특성을 다층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키워드 빈도 및 특징 어휘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 출현 빈도보다는 로그 오즈(log-odds ratio)와 상대빈도 차이(delta rate)를 함께 활용하여 집단 간 상대적 사용 편향을 분석하였다. 로그 오즈는 특정 단어가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자주 사용되는지를 측정하는 통계적 지표이며(Monroe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희귀 단어의 과도한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해 0.5 스무딩(smoothing)을 적용하였다.

상대빈도 차이는 특정 단어가 각 코퍼스 전체 토큰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를 의미한다. 즉, 한 단어의 집단별 상대빈도를 계산한 뒤 두 집단 간 비율 차이를 산출한 값으로, 특정 어휘가 어느 담론 집단에서 상대적으

로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두 담론 집단 간 특징적인 어휘를 시각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상대빈도 기반 비교 워드클라우드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비교 기반 워드클라우드는 코퍼스 간 특징적 어휘 차이를 탐색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었다(Castella & Sutton, 2013).

둘째,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미 네트워크 분석은 단어 간 동시출현 관계를 기반으로 의미 연결 구조를 시각화하고, 의미 공동체(cluster)를 탐색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 간 동시출현 행렬을 구축한 뒤 네트워크 중심성과 모듈러리티(modularity)를 기준으로 주요 의미 클러스터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두 담론 내부의 중심 의미 구조와 담론적 응집 양상을 비교하였다.

셋째, 문서 단위 감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감성 분석은 각 게시글의 정서 방향성을 긍정 부정 중립으로 분류하여 담론의 정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이다. 본 연구는 개별 문장이 아니라 게시글 전체를 하나의 분석 단위로 설정하여 문서 수준의 감성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담론에서는 개별 문장보다 게시글 전체의 맥락과 담화 흐름이 정서 형성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감성 분석에는 허깅페이스(Hugging Face)의 트랜스포머(transformers)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감성 분류 모델인 KoELECTRA 기반의 ‘cringepnh/koelectra-korean-sentiment’를 활용하였다.²⁾ 해당 모델은 입력 텍스트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확률값을 출력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게시글의 긍정 부정 확률값을 비교하여 최종 감성 범주를 분류하였다.

다만 해당 모델은 긍정과 부정의 이진 분류만 제공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립 범주를 추가한 규칙 기반 3분류 체계를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모델의 최고 확률값이 0.60 미만이거나 긍정 부정 확률 차이가 0.20 미만인 경우는 중립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중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높은 확률값을 보인 방향을 최종 감성 라벨로 부여하였다.

또한 ‘페미’와 ‘페미니스트’ 담론 간 감성 분포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2) 본 연구는 온라인 젠더 담론에 특화된 별도 감성 모델을 구축한 것이 아니라, 일반 한국어 감성 분류 모델을 활용한 탐색적 분석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과 맨-휘트니 U 검정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 검정은 긍정 부정 중립과 같은 감성 범주의 비율 분포가 두 담론 집단 간 유의미하게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반면 맨-휘트니 U 검정은 각 게시글에 부여된 감성 점수의 분포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전체 담론 수준의 감성 분포뿐 아니라, 의미 네트워크 분석에서 도출된 주요 의미 클러스터별 감성 분포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담론 클러스터 내부에서 감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분포하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4. 분석 결과

본격적인 텍스트 분석에 앞서, ‘페미’와 ‘페미니스트’가 어떠한 담론 공간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게시글이 수집된 갤러리 분포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페미니스트’가 가장 많이 출현한 상위 5개 갤러리는 주식(7.7%), 만화(6.3%), 메르스(3.2%), 중도정치(2.8%), 역학(2.5%) 순이었으며, ‘페미’의 상위 5개 갤러리는 주식(8.8%), 승리의 여신 니케(8.5%), 버추얼스나(6.2%), 치지직(4.4%), 프로레슬링(3.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페미니스트’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논의하는 갤러리에서도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된 반면, ‘페미’는 게임, 스포츠, 온라인 서브컬처 중심의 갤러리에서 높은 빈도로 출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동일한 플랫폼 내에서도 두 표현이 서로 다른 담론 공동체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후 텍스트 분석의 맥락을 제공한다. 텍스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키워드 및 특징 토큰 분석 결과

상대빈도 기반 비교 워드클라우드를 분석한 결과, ‘페미’와 ‘페미니스트’는 서로 다른 담론 구조와 언어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 대한/대해, 주의, 운동, 구조, 권력, 체제] 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예: 여성은 페미 1,030 vs 페미니스트 1,962로 페미니스트 쪽이 우세; 페미니즘 또한 페미 326 vs 페미니스트 845). 이는 페미니스트 담론이 특정 사건보다 규범이나 이념을 설명하는 언어로 더 자주 조직되며, 논증적 연결어 (대한/대해, 위해, 설명, 주장) 및 주체화 표지(우리, 자신, 스스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짐을 의미한다. 또한 ‘페미니스트’는 [성평등, 사회, 인권, 운동, 차별] 등 비교적 제도적이고 개념적인 어휘가 중심을 이루며, 사회적 담론이나 가치 논의와 관련된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페미’ 코퍼스에서 관찰되는 강한 비속 모욕 어휘는, 키워드 자체가 분노/혐오/조롱 같은 정서적 동원과 결합하기 쉬운 환경으로 번역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페미니스트’가 상대적으로 규범 논증 지향인 것과 대비되며, 페미가 타자에 대한 배제의 기호로 사용되는 가능성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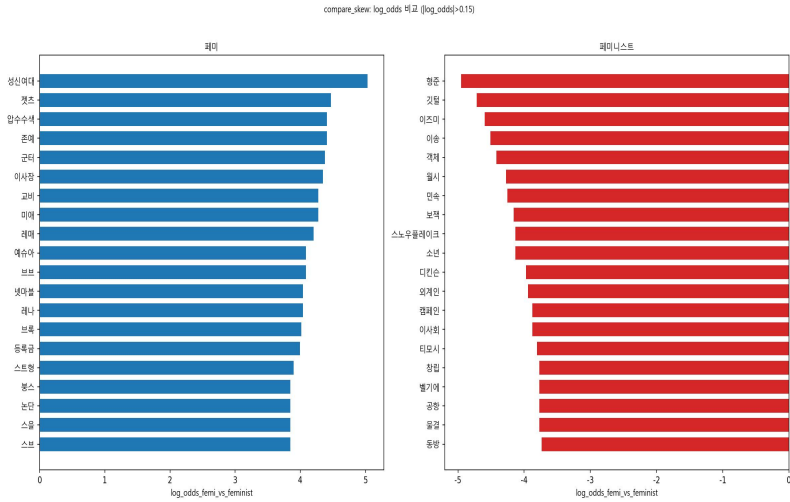
4.1.2 ‘이념’에서 ‘사건/논란’으로 담론 축소 재맥락화

두 번째로 발견된 특징은 ‘페미니스트’가 개념 설명 번역 중심 담화와 연결되는 반면, ‘페미’는 특정한 사건이나 논란을 중심으로 담론이 축소되거나 재맥락화된다는 것이다.

키워드 분석 결과, ‘페미’ 코퍼스 상위 키워드에는 [기사, 논란, 압수수색/수사] 등이 있었으며, 이는 담론이 규범적 논의라기보다 ‘사건’과 ‘프레임 전쟁’의 단위로 조직되는 경향을 뒷받침한다. 또한, [웹/게임, 갤러리, 트위터] 등 플랫폼 커뮤니티 지시어도 ‘페미’ 코퍼스의 상위 키워드였다 (예: 웹은 페미 579 vs 페미니스트 71로 큰 격차). 즉, 젠더 정치가 상징적 사건(기사화, 논란화)과 커뮤니티 내 확산을 통해 소비 재생산되는 장면을 반영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2>의 집단 간 상대적 사용 편향을 기준으로 추출한 특징 토큰을 대상으로 각 집단의 담화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했다.

그림 2
 ‘페미’와 ‘페미니스트’ 집단의 상대적 특징 토큰 비교(log odds ratio 기준)



각 특징 토큰이 실제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토큰이 포함된 문서 수, 실제 사용 문맥 예시, 해당 토큰이 등장한 문서 안에서 함께 공출현한 상위 항목을 함께 분석하였다. 공출현 분석은 특정 단어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단어가 어떤 의미상과 담화 구조 속에서 사용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분석 결과, ‘페미’ 집단의 특징 토큰은 사건 논란 수사 및 커뮤니티 판정 담화와 강하게 결합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성신여대’와 ‘압수수색’은 특정 시위 및 수사 사건과 반복적으로 연결되었으며, 동반어 분석에서도 시위, 경찰, 수사, 압수수색, 고소, 기사 등이 상위에 나타났다. 이는 ‘페미’라는 표현이 온라인 담론에서 단순한 정체성 표지라기보다 사건화된 갈등과 논란의 프레임 속에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사하게 ‘이사장’, ‘교비’ 역시 대학 관련 의혹 및 갈등 담화 속에서 사용되었으며, 법률, 비용, 경찰, 수사, 횡령 등의 단어와 함께 등장하였다.

또한 ‘레나’와 같은 특징 토큰은 “페미 의혹”, “페미로 몰아가기”, “해

3) ‘레나’는 2025년 버튜버 ‘달콤레나’의 ‘여남’ 발언 논란과 관련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명' 등의 표현과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등장하였다. 이는 '페미'가 특정 대상을 정치적 도덕적으로 판정하거나 낙인화하는 커뮤니티 내부의 검증 담화 속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함을 시사한다. 즉, '페미'는 설명적 개념어라기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정 입장과 정체성을 분류 판정하는 태그로 기능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일부 특징 토큰(군터, 레매, 브브 등)은 프로레슬링 및 서브컬처 맥락에서 등장하였다. 동반어 분석에서도 챔피언, 경기, 레슬매니아 등 스포츠 팬덤 관련 어휘가 상위에 나타났다. 이는 '페미' 담론이 단순히 정치 사회 이슈 중심 커뮤니티에 한정되지 않고, 디지털 팬덤 및 서브컬처 공간 내부에서도 반복적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젠더 관련 담론은 오늘날 온라인 플랫폼 환경 속에서 특정 정치 게시판을 넘어, 취미 팬덤 중심의 일상적 디지털 문화 공간 속에서도 하나의 담론적 코드처럼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페미니스트' 집단의 특징 토큰은 상대적으로 개념적 설명적 담화와 연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객체'는 “성적 객체화”, “대상화 비판” 등의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였으며, 개념 정의와 논증 중심의 담화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깃털'은 해외 사례⁴⁾나 역사적 캠페인을 소개 번역하는 텍스트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이는 '페미니스트'가 상대적으로 개념 설명, 번역, 해설 중심 담화 속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티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사례를 가리킨다. 당시 일부 남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남녀' 대신 '여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근거로 해당 스트리머에게 '페미'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관련 담론이 디시인사이드 펌코 등에서 확산되었다. (「치지직 달콤레나 '여남 & 페미' 논란 이후 직접 남긴 해명 방송 내용」, 아티브, 2025).

- 4) '흰 깃털(White Feather)'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 참전을 거부한 남성들에게 비겁함의 상징인 흰 깃털을 전달하며 사회적 압박을 가했던 캠페인을 의미한다. 이 운동은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젠더 역할을 요구했던 사례로 자주 논의되어 왔다.

4.2 의미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에서는 빈도 분석을 넘어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했다. 의미 네트워크 분석은 단어의 개별 출현 빈도뿐 아니라 특정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과 함께 연결되어 의미 군집(cluster)을 형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론 내부의 구조적 특징과 중심 프레임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의미 네트워크 분석 결과, ‘페미니스트’와 ‘페미’ 담론은 네트워크의 중심 구조와 의미 클러스터 구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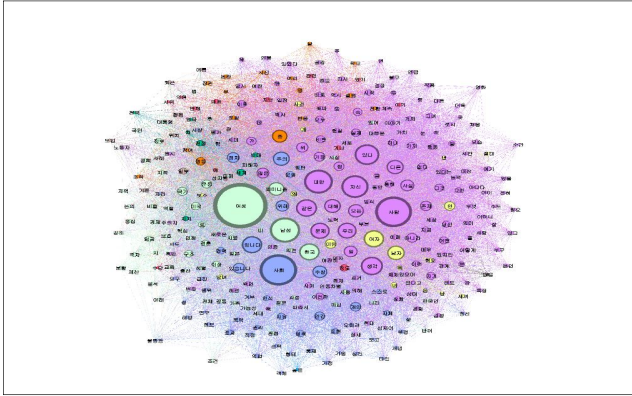
‘페미니스트’ 담론은 단일한 의미망으로 수렴되기보다는 여러 층위의 의미 공동체로 분화되어 나타났다. 특히 상위 4개 클러스터인 정체성 주체 인식(28.68%), 젠더 사회구조(24.30%), 정치 이념 가치(15.42%), 젠더 갈등 혐오(15.10%) 클러스터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특히 정체성 인식, 제도적 불평등, 정치 이념, 공론장 반응, 사회운동, 국제적 시민권 논의 등 다양한 영역이 상호 연결된 복합적 담론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 도출된 ‘페미니스트’의 주요 클러스터는 <표 1>과 같다.

표 1
‘페미니스트’ 네트워크의 주요 클러스터와 키워드 목록

클러스터	비중	키워드
정체성 주체 인식	28.67965	사람 생각 자신 우리 대한 문제 자기 이유 다른 모든 하나 존재
젠더 사회구조	24.29654	여성 남성 사회 페미니즘 결혼 연애 비혼 피해자 가해자
정치 이념 가치	15.42208	사회 주의 정치 주장 시장 개인 권력 자유 객체 성적 표현 억압 폭력
젠더 갈등 혐오	15.0974	여자 남자 한국 녀 왜 새끼 한남 혐오 개 육 돈 년 일본 남녀
사회 이슈 공공 담론	5.465368	평등 비판 설명 남편 사진 장관 논란 학교 대학 학생 덕질 뉴스 참여
젠더 정책 정당 정치	4.707792	대표 단체 민주당 시위 영상 목사 의원 이준석 개혁 성추행 여가부
국제정치 성소 수자	3.084416	세계 지지 전쟁 반대 게이 목소리 레즈비언 영국 징병제 깃털 평화 우크라이나

그림 3
‘페미니스트’ 의미 네트워크



첫째, 정체성 주체 인식 담론 클러스터는 ‘사람’, ‘생각’, ‘자신’, ‘우리’, ‘존재’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해당 클러스터는 페미니즘 담론이 단순한 성별 갈등을 넘어 인간과 사회, 집단과 개인의 관계 및 주체성에 대한 인식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신’, ‘우리’, ‘존재’ 등의 표현은 온라인 담론 속에서 집단 정체성과 자기 인식에 대한 성찰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젠더 사회 구조 담론 클러스터는 ‘여성’, ‘남성’, ‘국가’, ‘임금’, ‘결혼’, ‘경제’, ‘교육’, ‘차별’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담론은 젠더 불평등을 노동, 가족, 결혼, 사회 구조와 같은 제도적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특히 ‘결혼’, ‘가족’, ‘임금’, ‘차별’ 등의 표현은 젠더 문제를 개인 간 감정 대립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로 이해하는 담론적 특징을 시사한다. 또한 ‘미국’, ‘일본’, ‘국가’ 등의 단어가 함께 등장한다는 점에서 해당 담론은 국제 비교 및 사회 제도 차원의 논의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셋째, 이념 가치 논쟁 담론 클러스터는 ‘사회’, ‘정치’, ‘자유’, ‘권력’, ‘시장’, ‘개인’ 등의 개념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는 ‘페미니스트’ 담론이 단순한 여성 권리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자유주의, 개인주의, 권력 구조 및 사회 체제와 관련된 정치철학적 논쟁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유’, ‘권력’, ‘시장’ 등의 표현은 해당 담론이 가치 체계와 사회 이념의 차원에서 소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젠더 갈등 혐오 클러스터는 ‘여자’, ‘남자’, ‘한남’, ‘혐오’, ‘욕’, ‘새끼’, ‘너’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페미니스트’ 담론이 온라인 공간에서 감정적 대립과 혐오 표현 속에서도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해당 클러스터의 비중은 정체성 주체 인식 및 젠더 사회구조 클러스터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전체 담론 구조를 압도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즉, ‘페미니스트’ 담론에는 분명 젠더 갈등과 혐오의 요소가 존재하지만, 담론 전체가 혐오 중심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다양한 사회정치 정체성 논의가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페미니스트’ 담론은 다층적이고 분산적인 의미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공론장 미디어 반응 담론 클러스터는 ‘평등’, ‘설명’, ‘논란’, ‘반뉴스’, ‘참여’, ‘학교’, ‘학생’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이슈와도 연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2024-2025년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 과정은 큰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되었다(전율, 2025). 학교 측이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공학 전환을 추진하자, 학생들과 동문들은 여대의 정체성과 여성 공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실제로 학생들은 본관 점거와 시위, 래커 시위 등을 벌였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공간에서도 해당 이슈가 페미니즘 논쟁과 결합하여 활발하게 소비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페미니스트’ 담론이 실제 사회 제도와 공공 정책, 대학 구조 개편, 여성 공간의 의미와 같은 현실 사회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해당 클러스터의 존재는 페미니즘 담론이 뉴스와 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의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정당 사회운동 담론 클러스터는 ‘민주당’, ‘개혁’, ‘의원’, ‘시위’, ‘여가부’, ‘차별금지법’, ‘탄핵’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페미니즘 담론이 한국 사회의 정당 정치, 젠더 정책 및 사회운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특정 정당 및 정책 이슈와 관련된 표현들이 함께 등장한다는 점은 페미니즘이 한국 정치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정치

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정치 성소수자 담론 클러스터는 ‘전쟁’, ‘징병제’, ‘참전’, ‘우크라이나’, ‘게이’, ‘레즈비언’, ‘흰 깃털’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해당 클러스터는 다른 클러스터들과 달리 국내 젠더 갈등이나 한국 정치 이슈보다는 국제정치, 전쟁, 시민권, 성소수자 문제와 연결된 글로벌 젠더 담론의 특징을 보여준다. ‘깃털’, ‘하얀’, ‘영국’, ‘징병제’, ‘참전’ 등의 키워드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 나타난 White Feather Campaign(흰 깃털 운동)과 관련된 담론이 온라인 공간에서 재소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징병제’, ‘참전’, ‘평화’ 등의 표현은 단순 군사 문제를 넘어 젠더 역할과 시민권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연결된다. 특히 현대 온라인 담론에서는 “국가를 위해 남성만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전쟁 상황에서 젠더 평등은 어떻게 적용되는가”와 같은 논의가 페미니즘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남성 출국 제한과 여성 아동 우선 대피 문제 등이 온라인상에서 젠더 담론과 결합되면서, 전쟁과 젠더 역할에 대한 논쟁이 다시 활성화되었다. 또한 해당 클러스터에서 ‘게이’, ‘레즈비언’ 등의 표현이 함께 등장한 점은 페미니즘 담론이 성소수자 권리 및 퀴어 담론과도 교차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대 페미니즘 담론이 단순 여성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시민권 및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포함하는 보다 확장된 정치 사회 담론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페미니스트’ 담론은 단순한 젠더 갈등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정체성 인식, 제도 불평등, 정치 이념, 공론장 반응, 사회운동, 국제적 시민권 논의 등 다양한 층위의 의미 영역으로 분화되어 나타났다. 이는 ‘페미니스트’라는 용어가 한국 온라인 공간에서 복합적 사회 정치 담론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페미’ 네트워크는 ‘페미니스트’ 네트워크와 비교하여 훨씬 특정한 방향으로 응집된 구조를 보였다. 특히 젠더 갈등 혐오 클러스터가 전체의 42.39%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나타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이는 ‘페미’라는 표현이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갈등적 감정적 맥락 속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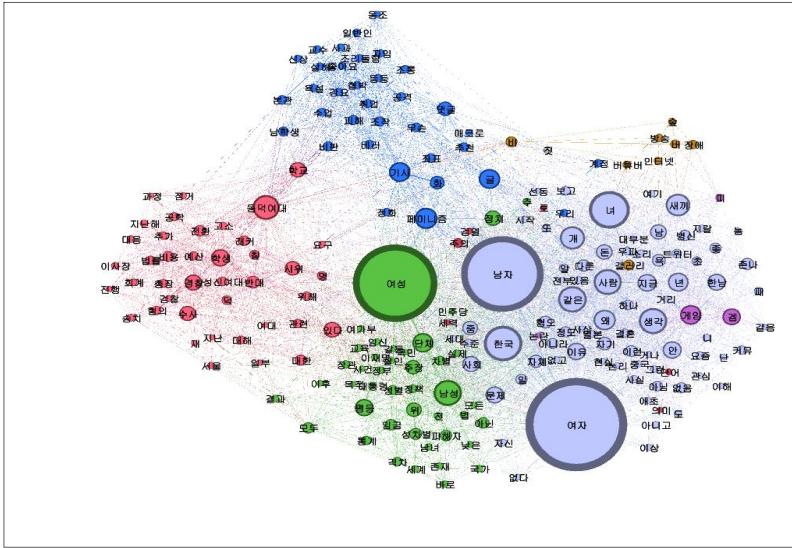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젠더 갈등 혐오 클러스터(42.39%)는 ‘여자’, ‘남자’, ‘너’, ‘한남’, ‘새끼’, ‘왜’, ‘문제’, ‘게임’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클러스터의 키워드인 ‘너’, ‘한남’, ‘새끼’와 같은 비하적 표현들은 ‘페미’ 담론이 젠더 갈등 및 혐오 표현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페미니스트’ 네트워크에서 젠더 갈등 혐오 클러스터가 전체의 15.10%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대조적인 결과이다. 즉, ‘페미니스트’ 담론이 비교적 분산적이고 다층적인 의미 구조를 보였던 반면, ‘페미’ 담론은 갈등과 혐오 중심의 의미망으로 강하게 수렴되는 특징을 나타냈다.

표 2

‘페미’ 네트워크의 주요 클러스터와 키워드 목록

클러스터	비중	키워드
젠더 갈등 혐오	42.39	여자 남자 사람 한국 너 생각 왜 새끼 문제 한남 게임
젠더 정치 사회 이념	22.16	여성 남성 사회 정치 평등 주장 국가 존재 운동 단체 사건 남녀 차별 정부 대통령
동덕여대 시위 갈등	7.28	반대 시위 동덕여대 처음 인정 설명 학생 경찰 과정 폭력 고소
온라인 논쟁 동원	6.79	페미니즘 우리 글 화 기사 비판 깃 댓글 정화 피해 공격 조롱 좌표
온라인 커뮤니티	4.2	갤러리 이상 이야기 커뮤니티 사이트 남초 주식 국내 카페
표현의자유 이념갈등	4.04	주의 자유 의미 단어 검열 사용 용어 책 표현 발언 보수 세력 의견 진보 층
디지털 서브컬처	3.72	방송 시절 인터넷 버튜버 영상 장애

그림 4
‘페미’ 의미 네트워크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젠더 정치 사회 이념 클러스터 (22.16%)였다. 해당 클러스터는 ‘여성’, ‘남성’, ‘사회’, ‘정치’, ‘평등’, ‘국가’, ‘운동’, ‘단체’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페미’ 담론 역시 단순 혐오 표현에만 머무르지 않고 젠더 정치 및 사회 이념과 관련된 논쟁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클러스터가 ‘결혼’, ‘가족’, ‘차별’, ‘임금’, ‘구조’ 등 제도적 사회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반면, ‘페미’ 클러스터는 ‘민주당’, ‘대통령’, ‘사건’, ‘단체’ 등 정치적 논쟁과 갈등 중심의 키워드가 두드러졌다.

즉, 동일한 젠더 정치 영역이라 하더라도 ‘페미니스트’는 구조적 제도적 논의를 중심으로 의미망이 형성된 반면, ‘페미’는 정치적 대립과 사건 중심의 갈등 프레임 속에서 소비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페미니스트’라는 용어가 ‘페미’로 축약 변형되는 과정에서 담론의 초점 역시 구조적 문제 인식에서 갈등 중심의 정치적 소비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페미’ 네트워크에서는 특정 사건, 온라인 상호작용, 플랫폼 문화와

관련된 하위 군집이 비교적 뚜렷하게 분화되었다. 특히 ‘동덕여대 시위 갈등 클러스터’가 전체 네트워크의 7.28%를 차지하며 독립적인 의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이는 특정 대학의 시위 및 갈등 이슈가 ‘페미’ 담론 내부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동덕여대’, ‘학생’, ‘시위’, ‘폭력’, ‘경찰’ 등의 단어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응집되어 나타난다는 점은, 특정 대학 및 그 구성원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페미’라는 범주와 강하게 연결되어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페미’라는 표현이 특정 집단을 일반화하거나 낙인화하는 담론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클러스터는 온라인 논쟁 동원 클러스터(6.79%)로 ‘댓글’, ‘정화’, ‘비판’, ‘공격’, ‘조롱’, ‘기사’, ‘화력’, ‘좌표’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단순 의견 표출이 아니라 특정 기사나 온라인 게시물에 집단적으로 개입하려는 실천적 행위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온라인 페미니즘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기사나 댓글 공간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댓글을 상쇄하거나 추천 수를 조정하는 행위를 ‘댓글 정화’ 혹은 ‘화력 지원’ 등의 표현으로 지칭해 왔다(박혜정, 2022). 또한 기사 링크를 공유해 집단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좌표를 찍는다’, 집단적으로 댓글에 참여하는 행위를 ‘보력 지원’ 혹은 ‘키배(키보드 배틀)’ 등으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 공간이 단순한 담론 생산의 장을 넘어 집단 행동과 여론전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몇몇 소규모 클러스터들은 ‘페미’ 담론이 온라인 플랫폼 문화 및 이념 갈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클러스터(4.20%)는 ‘갤러리’, ‘커뮤’, ‘디시’, ‘사이트’, ‘남초’, ‘주식’, ‘카페’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는 ‘페미’ 담론이 특정 온라인 플랫폼 및 커뮤니티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유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디시’, ‘남초’, ‘갤러리’ 등의 표현은 해당 담론이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페미’라는 표현은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칭하는 수준을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 내부의 문화적 코드 및 집단 정체성과 결합되어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이념갈등 클러스터(4.04%)는 ‘자유’, ‘검열’, ‘표현’, ‘의견’, ‘보수’, ‘진보’, ‘발언’, ‘용어’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페미니즘 관련 논의가 단순 젠더 문제를 넘어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올바름(PC), 검열 논쟁 등 이념적 갈등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서브컬처 클러스터(3.72%)는 ‘방송’, ‘인터넷’, ‘버튜버’, ‘영상’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팬덤 문화와 실시간 방송 환경 속에서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를 둘러싼 젠더 논쟁이 확산되는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페미’ 담론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디지털 서브컬처 환경 속에서 밈(meme), 조롱, 논쟁 등의 형태로 재생산되며, 하나의 인터넷 문화 코드처럼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3 감성 분석

본 절에서는 이러한 의미 구조의 차이가 실제 정서적 분포에서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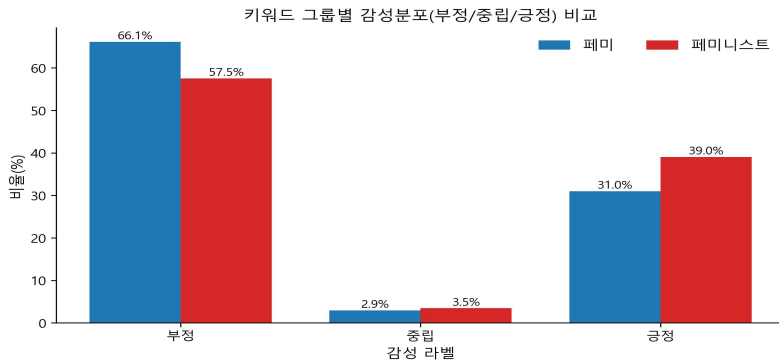
‘페미’와 ‘페미니스트’ 두 담론 집단 모두 부정 감성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페미’ 담론이 ‘페미니스트’ 담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부정 감성 비율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페미’ 그룹(femi, n=5,380)의 경우 부정 감성 게시글은 3,557건(66.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긍정 감성은 1,666건(31.0%), 중립 감성은 157건(2.9%)으로 나타났다. 반면 ‘페미니스트’ 그룹(feminist, n=3,387)에서는 부정 감성 게시글이 1,948건(57.5%), 긍정 감성이 1,322건(39.0%), 중립 감성이 117건(3.5%)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두 담론 모두에서 중립 감성 비율이 극히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페미니스트’와 ‘페미’가 단순 정보 전달이나 설명 중심의 중립적 담론이라기보다, 지지 반대 비난 방어와 같은 정서적 참여를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해당 담론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강한 감정 개입 속에 사용되는 참여형 담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성 라벨(부정/중립/긍정)과 그룹(페미/페미니스트) 간의 독립성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감성 라벨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66.07, p<.001$). 다만 효과크기(Cramer's $V=.087$)는 작은 수준으로 나타나, 두 담론 간 감성 분포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 규모 자체는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이는 두 표현이 완전히 상이한 담론이라기보다, 동일 계열 담론 내부에서 정서적 방향성이 일부 이동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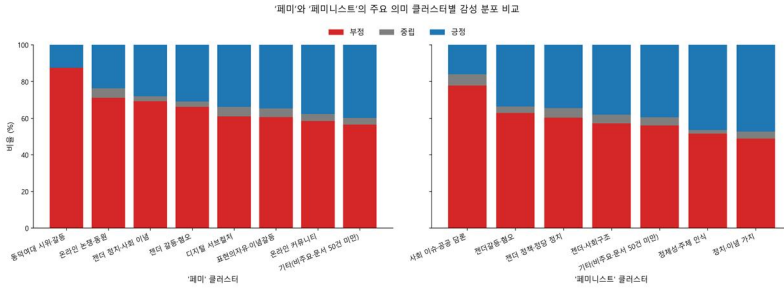
또한 감성 점수(부정=-1, 중립=0, 긍정=+1)에 대해서도 맨-휘트니 U 검정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 동일한 방향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p<.001$). 평균 감성 점수는 ‘페미’ 그룹이 -0.3515, ‘페미니스트’ 그룹이 -0.1848로 나타나, ‘페미’ 담론이 전반적으로 더 부정적인 정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5
‘페미’와 ‘페미니스트’ 그룹별 감성 분포 비교



전체 감성 분석은 ‘페미’와 ‘페미니스트’ 담론의 전반적인 정서적 차이를 보여주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정성이나 긍정성이 어떤 의미 영역에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 의미 클러스터별 감성 분포를 추가로 분석함으로써, 각 담론의 정서적 성격이 특정 주제 영역과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림 6
 '페미'와 '페미니스트'의 주요 의미 클러스터별 감성 분포 비교



그 결과, ‘페미’와 ‘페미니스트’ 담론은 각각 어떤 의미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감성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가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페미’의 경우 의미 네트워크의 상위 비중 클러스터인 젠더 갈등 혐오 클러스터(42.39%), 젠더 정치 사회 이념 클러스터(22.16%), 동덕여대 시위 갈등 클러스터(7.28%), 온라인 논쟁 동원 클러스터(6.79%) 모두에서 부정 감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페미’ 담론의 중심부가 사건, 논쟁, 갈등, 집단 대립과 같은 부정적 상호작용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페미’ 담론은 동덕여대 시위 갈등, 온라인 논쟁 낙인 등의 클러스터에서 매우 높은 부정 감성 비율을 보이며, 특정 사회적 갈등 사건 및 온라인 커뮤니티 기반 조롱 담론과 강하게 결합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반면 ‘페미니스트’의 경우 상위 비중을 차지한 정체성 주체 인식 클러스터(28.68%), 젠더 사회구조 클러스터(24.30%), 정치 이념 가치 클러스터(15.42%)에서 긍정 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공존하였다. 이는 ‘페미니스트’ 담론이 갈등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자기 정체성, 사회구조, 권리 및 가치 논쟁과 같은 설명적 정당화적 담론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두 표현의 차이는 단순히 부정 감성의 양적 차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 영역이 담론의 중심부를 구성하고 있는가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외래 개념인 ‘페미니스트’가 한국 온라인 공간에서 ‘페미’

로 재맥락화되는 과정에서, 담론의 중심 기능 역시 가치 정체성 논의에서 갈등 낙인 중심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외래 개념인 ‘feminist’가 ‘페미니스트’와 ‘페미’라는 서로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담론 구조와 의미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페미니스트’와 ‘페미’는 단순한 축약 관계를 넘어 서로 다른 의미망과 정서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콘웨이(2012)가 ‘상징문화의 이동으로서의 문화번역’을 설명한 바와 같이, 외래 개념이 새로운 문화적 환경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문화번역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페미니스트’와 ‘페미’는 서로 다른 담론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페미니스트’ 담론은 사회구조, 차별, 권리, 운동, 정치 이념 등 비교적 설명적 개념적 맥락 속에서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의미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정체성 주제 인식, 젠더 사회구조, 정치 이념 가치, 국제정치 및 성소수자 담론 등 다양한 의미 클러스터가 비교적 분산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페미니스트’ 담론이 젠더 문제를 단순한 남녀 갈등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시민권, 정치 사회적 가치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페미’ 담론은 갈등과 혐오 중심의 의미망으로 강하게 수렴되는 특징을 보였다. 키워드 분석에서는 ‘한남’, ‘너’, ‘새끼’와 같은 직접적 호명 표현과 비속어가 두드러졌으며, 특정 대상을 “페미”로 규정하거나 낙인화하는 담론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미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젠더 갈등 혐오 클러스터가 전체 네트워크의 중심부를 차지하였고, 동덕여대 성신여대 공학 전환 논란, 특정 시위 및 수사 사건과 관련된 갈등 중심 클러스터가 독립적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페미니스트’라는 외래 개념이 한국 온라인 공간에서 ‘페미’라는 표현으로 축약 변형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개념적 이념적 의미가 약화되고 감정적 갈등과 낙인의 기호로 재맥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문화번역의 관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콘웨이(2012)가 지적하듯 문화번역은 단순히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과정이 아니라, 특정 개념이 새로운 문화 환경 속에서 재배치되고 새로운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라는 외래 개념이 한국 온라인 공간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맥락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러한 문화번역이 수행되는 핵심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페미’ 담론에서는 댓글 정화, 좌표 공유, 화력 지원, 조롱, 공격 등의 표현이 하나의 의미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특정 사건과 대상에 대해 집단적으로 개입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정치적 실천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게임, 인터넷 방송, 버튜버, 스포츠 팬덤 등 비정치적 디지털 서브컬처 공간에서도 젠더 갈등 담론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차유리 등(2025)이 설명한 “여가화된 정치 토론”의 특성과 연결되며, 오늘날 온라인 공간에서는 정치 사회적 논쟁이 취미 팬덤 중심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방식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인터넷 공간은 감정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집단적 여론을 형성하는 “감성 공론장”(김예란, 2010)으로 기능하며, 이러한 감정 정치 속에서 외래 개념 역시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획득하게 된다.

감성 분석 결과 역시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였다. 두 담론 모두 부정 감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페미’ 담론은 ‘페미니스트’에 비해 더욱 강한 부정성과 갈등 중심의 정서 구조를 보였다. 특히 젠더 갈등 혐오, 사건 시위, 온라인 논쟁 동원 클러스터에서 부정 감성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반면 ‘페미니스트’ 담론은 정체성 주체 인식, 젠더 사회구조, 정치 이념 가치 클러스터에서 긍정 감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는 두 표현의 차이가 단순한 감성의 양적 차이가 아니라, 어떠한 의미 영역이 담론의 중심부를 구성하고 있는가의 차이와도 연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오늘날의 번역이 전문 번역가나 제도적 번역 행위에만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환경 속에서 일반 이용자 집단의 상호작용과 감정적 실천을 통해 문화번역의 형태로 수행될 수 있음을 실증

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번역학적 함의를 가진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번역학이 언어 변환 자체를 넘어, 이문화간 이동과 집단적 의미 생산, 감정 정치의 문제까지 함께 탐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는 대규모 온라인 담론을 대상으로 한 정량적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가 ‘페미’로 재맥락화되며 부정적 정서와 낙인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담론 형성 과정 자체를 심층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내부의 상호작용 방식, 밈과 조롱 문화, 집단 정체성 및 담화 규범 등은 단순 빈도나 네트워크 구조만으로 충분히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특정 커뮤니티 내부의 언어 사용과 상호작용 맥락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질적 담화분석 및 디지털 민속지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시인사이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으로서 온라인 담론 연구에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지만, 플랫폼별 이용자 구성과 담론 문화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한국 온라인 담론 전체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비교 분석을 통해 온라인 담론에서의 문화번역 양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외래 개념이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어떠한 의미망과 감정 구조로 재맥락화되는지를 비교함으로써, 문화간 이동 과정에서 개념이 어떻게 변형되고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획득하는지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번역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번역학에서는 번역이 더 이상 원문과 번역문의 대응 관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문화와 담론, 권력과 정체성의 이동 과정 전체를 다루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이처럼 외래 개념이 온라인 플랫폼 환경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의미화되고 소비되는지를 탐색하는 작업은, 디지털 시대 번역학의 연구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번역학이 문화번역의 시대에 “죽고 묻혀질(to be dead and buried)” 길 위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할 수 있다(Trivedi, 2007). 그러나 어쩌면 번역이 기존의 경계를 벗어나 ‘죽고 묻혀질’ 때에야 비로소, 다시 태

어날 수 있는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 강정아. (2026. 6. 4). [당신의 생각은] 이재명發 '일베 폐쇄론'에 커뮤니티 슬링... "플랫폼 책임" vs "표현 자유 위축".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6/06/04/UK6SMAAJARH73D MQAFOB3ROBVU/
- 김예란. (2010). 감성공론장: 여성 커뮤니티, 느끼고 말하고 행하다: 여성 커뮤니티, 느끼고 말하고 행하다. *언론과 사회*, 18(3), 146-191.
- 박혜정. (2022). 탈코르셋 운동 참여자의 경험과 '페미니즘' 이해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E-Space.
- 선담은. (2025. 8. 8.). 국내 최대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매출로 — 몸값 2천억 수준.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212371.html>
- 아티브. (2025. 7. 21.). 치지직 달콤레나 '여남 & 페미' 논란 이후 직접 남긴 해명 방송 내용(빨간약, 얼굴, 전생, 반캠, 남친). 아티브.
<https://www.artiv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7>
- 양수민, 이신행. (2023). 젠더 갈등으로 대두된 기업 위기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귀인 양상: Biterm Topic Model을 이용한 댓글 분석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19(3), 138-193. <https://doi.org/10.20879/ct.2023.19.3.138>
- 이상빈. (2012). 문화번역과 젠더번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통번역학연구*, 16(3), 23-42.
- 전율. (2025. 2. 3.). 교육부 총공격 전국 여대생들 뭉쳤다 — 동덕여대 공학 전환 후폭풍.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8059>
- 차유리, 김현미, 김지희. (2025). '여적여' 프레임을 넘어 — 온라인 여초 커뮤니티 '남미세 담론'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중심 혼합방법 활용 탐색. *한국여성학*, 41(4), 177-227.
- Bassnett, S., & Lefevere, A. (Eds.). (1990). *Translation, history and culture*.

Pinter Publishers.

- Bassnett, S., & Lefevere, A. (1998). *Constructing cultures: Essays on literary translation*. Multilingual Matters.
- Bhabha, H. K.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Routledge.
- Bucholtz, M., & Hall, K. (2005). Identity and interaction: A sociocultural linguistic approach. *Discourse Studies*, 7(4-5), 585-614.
- Castella, Q., & Sutton, C. (2013). Word storms: Multiples of word clouds for visual comparison of documents. *Proceedings of the 2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ld Wide Web*, 665-672.
- Catford, J. C. (1965). *A linguistic theory of transl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Conway, K. (2012). A conceptual and empirical approach to cultural translation. *Translation Studies*, 5(3), 264-279.
- Cott, N. F. (1987). *The grounding of modern feminism*. Yale University Press.
- Maitland, S. (2017). *What is cultural translation?* Bloomsbury Academic.
- Monroe, B. L., Colaresi, M. P., & Quinn, K. M. (2008). Fightin'words: Lexical feature selection and evaluation for identifying the content of political conflict. *Political Analysis*, 16(4), 372-403.
- Offen, K. M. (2000). *European feminisms, 1700-1950: A political history*. Stanford University Press.
- Pym, A. (2010). *Exploring translation theories*. Routledge.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ur.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2nd ed., pp. 7-24). Nelson-Hall.
- Trivedi, H. (2007). Translating culture vs cultural translation. *91st Meridian*, 6(1), 1-10.
- von Flotow, L. (1997). *Translation and gender: Translating in the "era of feminism"*. St. Jerome Publishing.

Cultural translation of “feminist” into “femi” in Korean online discourse: A text mining approach to gendered recontextualization

Sang-Mi Kwon

School of Global Humanities, University of Ulsan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imported concept “feminist” is culturally translated and recontextualized into the abbreviated form “femi” within Korean online discourse. Moving beyond conventional understandings of translation as interlingual transfer, the study approaches online linguistic transformation as a process of cultural translation in which social meanings, ideological positions, and affective attitudes are reconstructed within a new sociocultural context. Drawing on 8,767 online posts collected from the Korean online community DC Inside, the study compares discourse surrounding the keywords “페미니스트” (feminist) and “페미” (femi). Through keyword frequency analysis, semantic network analysis, clustering analysis, and sentiment analysis, the study reveals that the term “feminist” is culturally translated and recontextualized as “femi,” with attention shifting from broader discussions of gender and social structures to specific conflicts and contentious issues, while the term increasingly functions as a negatively charged label.

Keywords: Cultural translation; feminist; text mining; online discourse; gender
키워드: 문화번역, 페미니스트, 텍스트 마이닝, 온라인 담론, 젠더

권상미(<https://orcid.org/0009-0005-4559-939X>)

울산대학교 글로벌인문학부 조교수

kwons@ulsan.ac.kr

논문 투고일: 2026년 5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6년 5월 3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6년 6월 9일

게재 확정일: 2026년 6월 14일